**한국수력원자력 자기소개서**

직무 : 기술

**1. 우리 회사 지원동기와 입사 후 포부에 대해 작성하세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남 1녀 중의 장남으로 태어나,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여동생을 하루의 절반이상을 함께하며 돌보며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언제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가짐, 남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항상 그 말씀들을 들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하는 기술부분을 전공으로 해서 공부하면서도 제가 가진 기술을 이용해서 남들에게 최대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귀사는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최대한의 사람에게 최대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입사하게 된다면, 귀사의 핵심가치인 안전, 기술, 정도, 사회적 책임, 존중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사람들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물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쾌적한 환경에서 제공하는 기술을 익혀서 제가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해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발전하고 싶습니다.

**2. 자신의 장점 및 단점은 무엇이며,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작성하세요.**

저는 지인들로부터 적응력이 빠르고,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되도록 효과적이고 빠르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점이 장점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해서 친구들이 많다는 것도 저의 큰 자랑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좋아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크다보니, 어떤 때에는 제가 가끔 손해를 보는 일도 생겨서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 예전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귀사에 입사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을 너무 많이 배려해서 생기는 저의 단점도 완벽하게 장점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맡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한 경험에 대해 작성하세요.?**

대학교 시절, 겨울방학 동안 병원에서 안내접수를 하는 원무과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서울에서 꽤 큰 편에 속하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항상 많았고, 접수도 받고 문의전화도 받고, 문의 사항을 물어오는 환자들을 안내하기도 하는 일이 쉽지 많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대부분은 아픔을 참다 참다 참지 못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항상 신경이 예민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느리게 대응을 하면 금방 화를 내거나 윗사람을 불러오라고 소리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힘이 들고 스트레스도 큰 일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여기서 포기해 버리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많은 일들 중에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하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고, 화를 내는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표정을 굳히지 않고 죄송하다고 사과도 하고, 저만의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항상 숙지하면서 되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에 노력을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원래 일하기로 했던 기간을 완벽하게 다 채우고 병원 원장님과도 웃으면서 인사하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겨울방학의 일은 지금 돌이켜봐도 정말 뿌듯한 경험이었습니다.

**4. 새로운 환경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 작성하세요.**

대학교 시절, 다른 동기들보다 한 학기 늦게 대학 동아리에 가입하게 된 저는, 이미 다른 동기들이 친해져 있는 사이에 중간에 가입하게 되어서 처음 동아리방에 들어갔을 때는, 간단하게 인사만 나누고 서로 할말을 찾지 못해 어색하게 앉아 있다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사람 사귀기 좋아하는 성격을 이용해서, 그 다음날부터 서클 동기들의 얼굴과 특징들을 외워서 학교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도 제가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나누고, 서클 행사나 친목회 등에는 반드시 참석하며, 서클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주력멤버가 되어 계획하고 이끄는 등, 1학년이 하기에는 많다 싶을 정도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1학년이 끝날 무렵에는 1학기 때 가입해서 1년 동안 쭉 함께 지냈던 것처럼 사이가 좋아지고 친해지게 되어, 현재까지도 그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5. 다른 사람들이 당연시 여기는 일처리 방식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하여 목표한 바를 달성했던 경험에 대해 작성하세요.**

대학교 겨울방학 때 했던 병원 아르바이트에 관한 경험입니다. 원무과에서 접수, 안내를 하는 아르바이트였지만, 워낙 남자직원이 적었던 탓에, 남자인 저는 병원 이곳 저곳에 불려다니며 짐도 나르고, 환자이동도 도와드리고, 부서진 곳이 있으면 간단한 수리도 돕는 등의 일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환자의 차트를 정리하는 일을 도울 일이 있었는데, 차트 정리를 차트번호 순서대로 하는 것은 좋았지만, 차트들을 종이상자에 번호대로 넣어서 차곡차곡 쌓아두고, 차트를 찾을 일이 생기면 그 박스들을 하나하나 열어서 확인한 후 차트를 찾는 방식이어서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쓸데없는 수고가 드는 것 같아서 여쭤보니, 오래 전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들을 100개씩 나눠서 종이 책꽂이에 넣은 후, 종이 책꽂이에 100개씩 나눈 차트의 앞자리 숫자를 넘버링해서 붙여서 책처럼 책꽂이에 꽂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니, 일일이 차트를 뒤지지 않아도 원하는 차트를 금방 찾을 수 있어서 시간단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시도였지만, 간단한 시도만으로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